

##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228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요한 18,33ㄴ-37)

###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니다.
-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향,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 함께하는 복음 묵상

### 요한 18,33ㄴ-37

교회 전례력으로 한해를 마감하는 오늘을 교회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만왕의 왕이셨지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왕이 지녀야 할 조건들을 거의 지니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요?"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결코 이 세상에 존재했다가 예수님의 왕국은 결코 이 세상에 존재했다가 얼마 후 사라지는 일장춘몽과도 같은 왕국이 아니며, 이 세상이 멸망한 후에도 영원히 지속되는 위대한 왕국으로 그 왕국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왕국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조차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나라 때문에 집이나 아내,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여러 곱절로 되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루카 18,29-3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 '집, 아내, 형제, 부모'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십니까?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옛날 인도에 구걸을 하던 거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의 옆에 놓인 구걸 그릇에 쌀 열마를 넣어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얼마간의 쌀로 겨우 연명하며 살아 나갔습니다. 가끔 동전을 쥐어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소액이기에 그 거지에게 별로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거지는 '꼭 왕자님의 행렬 같은데 그거 참 잘 됐다. 틀림없이 내게 금화를 주실 거야!'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잔뜩 기대하며 그 행렬이 도착하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 거지 앞에 큰 행렬이 도착했고 그 행렬의 주인공은 거지가 생각했던 대로 왕자님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왕자가 금화를 주실 거라는 기대에 들떠있던 그 거지에게 뜻밖에도 왕자는 "네 그릇에 있는 그 쌀을 나에게 주지 않으려나?"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거지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 인데요!"라며 왕자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왕자가 다시 "네가 가진 쌀을 나에게 다오."라고 하자 거지는 더욱 단호한 태도로 "이 쌀을 드리면 저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며 왕자의 요청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왕자가 세 번째로 요청을 하자 거지는 속으로 '참 너무나 왕자님이네, 모든 것이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적선을 하지는 못할망정 내가 가진 얼마 되지도 않는 쌀을 나누어 달라나!'하고 투덜대면서 마지못해 그 그릇에서 쌀 세 톨을 건네주자 왕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긴 자루 속에 손을 넣더니 금화 세 닢을 꺼내 그 거지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아, 내가 왜 왕자님 손에 이 그릇에 있는 쌀을 모두 드리지 않았담!"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때늦은 후회를 했지만 왕자의 일행은 멀리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재물, 가족, 시간, 건강'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선물로 우리에게 당신이 베풀어주신 것 중에 십분의 일을 '하느님과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바치기를 원하십니다(신명 14,22-29).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당연히 봉헌해야 할 '십일조'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 헌금과 교무금을 봉헌하면서 이야기 속의 거지처럼 무척이나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쌀 한 톨'을 '금화 한 닢'으로 되갚아준 이야기의 왕자처럼 우리가 하느님께 봉헌한 것에 대해 하느님께서서는 몇 십 배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게 뿌리는 이는 적게 거두어들이고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들이니. 저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해서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기쁘게 주는 이를 사랑하십니다(2코린 9,6-7)' 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을 기억하면서 정성되고 기쁜 마음으로 교무금과 헌금을 봉헌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수원교구 11월 나눔의 소공동체에서 발췌)

#### 공지사항

※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세상을 떠난 부모 형제, 친지, 그리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매일미사를 봉헌합니다.

※ 산호세 본당 교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 성전 이전을 위한 기도'와 '기금 모금' 운동에 참여합니다.

## "말씀이 우리와 함께"

### ◆ 이 달에 읽을 말씀: 민수기 22-36장

1. 민수기 20,22-29을 읽고 다음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아론의 죽음

이제 아론은 선조들 곁으로 간다. 너희가 무리바의 샘에서 나의 분부를 ( )하였으므로,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 )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 )를 데리고 호르 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 )에게 입혀라. 아론은 선조들 곁으로 간다.

2. 민수기 27,12-23을 읽고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되다

모세 : 모든 육체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느님께서서는 이 공동체 위에 한 사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 떼처럼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 눈의 아들 ( )를 데려오너라. 그는 ( )을 지닌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네 손을 얹어라. 그리고 그를 엘아자르 사제와 온 공동체 앞에 세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임명하여라.

3.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축복을 발라암이 전하다.

발라암은 하느님에게서 받은 신탁을 네 번에 걸쳐 전한다. 이스라엘에 한 별이 솟고 한 왕권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한다. 곧 강력하고 영화로운 임금, 곧 메시아가 야곱 가문에서 태어나리라는 예언이다. (민수 24,15-17)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

야곱에게서 ( )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 )이 일어난다.”

### ◆ 민수기 정리

Q. 민수기에는 숫자, 연대, 족보등 인명과 수효에 대해 자주 나오는데 그 구절들을 굳이 다 읽어야 할까요?

A. 사제계 전승인 신명기에 명기된 숫자들이 모두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이 낡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는 홍수 이후 노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결실을 맺었음을 숫자를 통해 보여 줍니다.

두 번째,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각 지파의 장정 수를 헤아리는 것은 **약속의 땅에 대한 굳은 의지의 표명**입니다. 1차 인구조사(민수 1,1-47)에 따르면 열두 지파의 전체 숫자는 603,550명이고, 2차 인구조사(민수 26,5-51)에서는 601,730명으로 이 숫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의 수만을 포함한 것입니다.

세 번째, 열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히 헤아림으로 하느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질서와 조직이 잘 정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이름(민수 1,1-47)은 르우벤, 시메온, 유다, 이사카르, 즈블룬, 에프라임, 므나세, 벤야민, 단, 아세르, 가드, 납탈리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과 열두 지파의 이름이 조금 다른 것은, 성막을 맡은 레위 지파가 명단에서 빠지고 요셉 지파 대신 요셉의 아들인 에프라임과 므나세가 한 지파씩 맡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창세 48,15-16,20).

### ◆말씀과 생활 나누기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하시기 위해 모세를 선택하신 것은 모세의 넘치는 자신감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진정으로 아는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이런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지 서로 나눠 봅시다.

##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 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엘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소공동체가

기도하며...

정사 원 정 수  
전목 원 정 수

하느님 백 성 자녀들 아! 모 두 모 - 여 라

우 리 의 삶은 주 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알렐루 아

증 - 기 하 고 방 사 하 자 세 상 모 두 에 게

마 음 모 - 아 기 도 하 고 합께 나 가자 천국 으 로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